

〈바울의 기상〉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9/17(주일) 설교 내용

사도행전 26:24-29

1. 바울은 억울하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상황들을 가리켜 ‘도우심’, ‘은혜’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은혜’가 떠올랐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억울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렸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만약 그런 분들이 없다면 일부러 그런 나눔을 하도록 일부로 유도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없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런 높은 차원의 신앙에까지 함께 자라가 보자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처럼 예수 믿어보라!’고 당당하게 말해볼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것 일까요? 정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솔직히 ‘나처럼 예수 믿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전제로 이 문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처럼 예수 믿어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말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 성실하지 못한 직장생활, 좋은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목자가 먼저 나눠주신다면 자연스러운 나눔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개개인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